



서재응

KIA 마운드 “울고 싶어라”



시범경기

챔피언스리그의 관중들이 “김상현 홈런”을 외치기 시작했다. 전광판에는 11이라는 숫자가 새겨졌다.

길고 길었던 9회, 도대체 KIA 마운드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KIA는 19일 챔피언스리그에서 SK와 시범경기를 치렀다. KIA 서재응과 SK 레이에스의 대결로 전개됐던 이날 경기는 사실 경기 시작과 함께 흐름이 갈렸다.

서재응이 선두타자 김재현에게 우익수 키를 넘기는 3루타를 내준 뒤, 1사에서 SK의 클린업 트리오 최정-스캇-김상현에게 연속해서 안타를 얻어 맞았다. 박정권의 볼넷과 정상호의 안타까지 KIA는 1회에만 4점을 내주며 비틀거렸다.

3회에 또 1사 1루에서 SK 김상현이 연속 2

선발 서재응 3이닝 6실점... 불펜도 불안 불안
9회만 11실점... 26 안타 맞고 SK에 2:18 대패

루타를 날리는 등 박진만의 적시타를 묶어 SK가 6점을 채웠다.

반면 레이에스 공략에 실패한 KIA 타선은 3회 박기남·김선빈·이범호의 안타로 간신히 1점을 만들어내는 데 그쳤다. 8회 두 번째 점수는 불펜으로 출루한 신종필이 쪽투 두 개로 홈을 밟으면서 겨우 얻어낸 점수였다.

선발 싸움에서 밀리며 일방적으로 끌려가던 KIA는 9회 SK의 방망이쇼에 KO패를 당했다. 바뀐 투수 이대환이 김상현·한동민·정상호에게 공략을 당하며 연속해서 외야 가운데를 내줬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박진만의 내야 안타와 3루수의 송구실책, 김성현의 안타·볼넷이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주자들이 홈을 밟았다.

임훈의 희생플라이로 점수와 아웃카운트를 바꾼 KIA가 박준표로 투수를 교체했지만 SK의 기세를 꺾을 수 없었다. 7타자가 계속 안타를 기록하면서 전광판의 안타를 의미하는 H열에 숫자가 올라갔다. 점수를 의미하는 R도 쉬지 않고 바꿨다. 9회 점수란에는

급기야 9점을 넘어 10점, 11점까지 찍혔다. 공·수의 무기력한 모습에 실망한 팬들은 9회 스타트를 끊었던 김상현이 타자 일순해서 다시 타석에 서자 “김상현 홈런”까지 외치며 불편한 심기를 노골했다.

26개의 안타로 못매를 맞은 KIA가 이날 유일하게 삼자범퇴로 막은 이닝은 8회 단 한 번에 불과했다.

선발 서재응이 3이닝 9피안타 1사사구 2탈삼진 6실점을 기록했고, 두 번째 투수 박성호는 실점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2이닝 동안 2피안타 2볼넷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기대주였던 한승혁이 스카트의 2루타에 다시 또 실점을 하는 등 마운드 답을 찾기 위해 준비한 테스트 무대가 2-18 엉망으로 끝이 나고 말았다.

이날 경기로 서재응·임준섭·박경태를 놓고 전개되던 선발 싸움은 미궁 속으로 빠졌고, 불펜의 고민은 더욱 두드러졌다. 20일에는 임준섭이 테스트를 받을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말.말.말

나지완, 훈련중 김주형 타구 쪽쪽 뺏어나가자 “무식한 놈”

▲“아직 못 찾았어요”=이대형, 출루율에 대한 답을 찾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처음 KIA 합류했던 날 방법을 찾았다고 언급했다. 겸손한 대답과 달리 이대형의 이번 시범 경기 출루율은 0.542를 기록하고 있다.

▲“무식한 놈”=나지완의 배팅 훈련을 지켜보던 김주형, 타구가 외야로 쪽쪽 뺏어나가는 것을 보고, 둘은 1985년생 동갑내기 친구다. 나지완은 2개의 훈련을 기록하고 있다.

▲“훈련 등록해야 하는데”=필이 배팅 훈련을 하는 것을 본 선동열 감독, 아직 훈련이 없다면서, 필은 훈련 때 우익수 담장을 넘기

는 훈련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경기에서는 3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어센시오 불러야겠는데요”=KIA 관계자, 9회 계투진으로 난조로 수비가 계속되자, KIA는 9회에만 11실점을 하는 불쇼를 선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레알·첼시 “유럽 챔피언 향해 전진”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

스페인과 잉글랜드의 축구 명문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가 나란히 홈에서 승전보를 울리고 유럽 대륙 정복을 향해 전진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19일(이하 한국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에서 열린 2013-201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샬케04

(독일)를 3-1로 따돌렸다. 지난달 27일 독일에서 치른 원정 1차전에서 6-1 대승을 거뒀던 레알 마드리드는 1·2차전 합계 9-2로 여유 있게 앞서면서 8강에 올랐다.

첼시는 갈라타사라이(터키)를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로 불러들여 2-0으로 완파했다. 1차전 터키 원정서 1-1로 비겼던 첼시는 이날 승리로 1·2차전 합계 3-1로 앞서 8강 대열에 합류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챔피언스리그 8강에는 FC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상 스페인), 바이에른 뮌헨(독일), 첼시(영국),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이 올랐다.

나머지 두 자리는 20일 열리는 도르트문트(독일)-제니트(러시아) 경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영국)-올림피아코스(그리스) 경기의 승자가 채운다. /연합뉴스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